

수도산공원 '남부권 복합커뮤니티공간' 재탄생

익산시, 역사·문화·자연요소 결합 체험학습공원 등으로 구성

익산 수도산공원이 자연과 문화, 역사가 결합된 남부권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이번 사업은 장가미집행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시행 중인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으로 29일 동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조성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도산공원은 '남부권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이라는 특징을 토대로 크게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자연생태공원, 복합문화센터 기능이 포함된 문화중심공원, 주변 교육시설과 익산의 역사를 연계한 체험학습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연생태공원에는 시민들의 모임과 교류 장소인 수도광장,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생태학습장, 탄생석 길과 탄생화, 탄생목으로 꾸며질 탄생석 정원 등이 조성된다.

복합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할 문화중심공원에는 숲속어린이집,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들어서며 이를 연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도복합문화센터, 자연과 함께 하는 테마놀이공간인 백제자연놀이터, 복합문화센터와 연계한 백제광장 등이 조성돼 주민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체험학습공원에는 백제역사를 주제로 전통담장, 역사의 길 등을 조성하는 백제정원, 익산의 역사를 공부할 역사박물관, 문화센터가 조성될 백제 복합문화센터,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마당, 수도산 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도전망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처럼 수도산공원은 다양한 휴식·체험시설과 수목이 더해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숲속 공원으로 조성된다.

수도산공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2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와 많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수도산공원에 대한 테마 및 주요 도입시설, 향후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수도산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가미집행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29일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가족행복계획사 양성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육부담 덜고 행복한 가족생활 돕는다

군산시, 군산대와 가정행복계획사 양성 협약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29일 군산대 산학협력단(단장 김영철)과 '가족행복계획사 양성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가족행복계획사는 신혼부부, 한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감안한 맞춤형 행정안내와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족 단위 전담 계획사를 지정해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지원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가족행복계획사를 양성하고 시가 파견 및 운영하며,

서바이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된다.

또 세대주 및 가족의 신청을 기본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파견 될 예정이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가족행복계획사의 파견으로 생애주기별로 행정서비스 지원내용, 부모교육, 검사, 상담 등의 가족 맞춤형 안내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해 시민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실행

농기센터, 2023년까지 5년간 348개 사업 최대 6900여억원 투입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가 농업 농촌 식품산업 2차 5개년 발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29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48개 사업에 최대 6900여억원이 투입되는 군산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사업에 대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에는 농업관련 민선7기 농정철학인 공영, 순환, 사람을 바탕으로 '따뜻한 자립 농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라는 비전을 8대 핵심전략에 실현가능한 실천과제가 담

겨있다.

특히 국정, 도정의 농업정책 방향과 군산농업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10대 추진과제에 다양한 실천의제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사업부서별로 맞춤형 로드맵을 작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된다.

이를 통해 시는 8대 핵심과제 전략과 10대 세부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협업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푸드플랜과 군산농업 공유 3.0 근간으로 군산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역 순환농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발전계획이 이행될 경우 원예소득은 전체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에서 10%로 늘어나며 친환경 농업은 1000ha로 증가하는 등 5년 후 농업소득이 5%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래 소장은 "군산농업을 분석하고 재해석해 농업 농촌의 새로운 길을 민간이 뜻을 모아 마련했기 때문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추진 사업들이 농업인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칭 행사

익산시-원광대, 맞춤형 인력공급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원광대(총장 박맹수)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맞춤형 인력공급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생 모델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29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원광대학교 식품산업커피클럽사업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습 매칭대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고 원광대는 학생들의 취업을 도우며 익산시는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투입하는 지역상생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해 본격적으로 가동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유) 씨앤씨커피, (주)핀커피, 순수본 주식회사, (주)프롬바이오 등 8개사가 참여해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 복리후생, 채용정보 등을 공유했고 관심 있는 학생들과는 개별적인 소통과 현장면접이 진행되기도 했다.

원광대 70여명의 학생들은 식품산업 현장에 대한 생생한 소통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를 위한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익산 전통시장 화재 '안전지대' 로 변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1억2000만원 확보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5곳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킨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금마·남부·합열·황등시장 등 4곳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돼 국비 94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매일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년 연속 전통시장 안전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대부분 복합형 건축물로 밀집형구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곳들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예산 1억 7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된 매일시장을 포함해 5개 시장, 총 223개 점포에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하는 연기와 열, 불꽃을 감지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각 점포별로 유·무선 감지기와 상인과 관할 소방

서와 연계할 수 있는 자동화재초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각 시설이 설치되면 화재 발생 시 발화요인을 조기 감지해 소방서와 상인에게 즉각 통보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가능해 진다.

시는 오는 8월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해 업체선정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설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중앙·매일·서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4억6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매일시장은 이와 별도로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익산시, 올해까지 최대 40만 원까지... 신청 서둘러야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사고를 방지해주는 첨단안전장치·장착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익산시는 29일 사업비 4억 5,400만원(국비 50%, 도비20%, 시비30%)을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견인차량과 특수용도·특수작업형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이 확대됐다.

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 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착 의무 대상에 포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량 소유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성능을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을 작성해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올해까지만 지원된다.

이 장치는 전방충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익산시는 장착 대상 차량 1,135대 가운데 4월까지 556대 장착을 지원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